

| 위원장 신년사 |

새 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신나게 전진합시다!

3월입니다. 봄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교가 직장인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설레임보다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가득 안고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초중고가 직장인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는 작년에 확정된 새로운 근로조건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잘 실행되는지 단단히 살펴야 하고, 대학교가 직장인 청소년들은 새내기 대학생들로 확 늘어난 일거리에 대비하는 한편, 임금교섭을 준비해야 하는 달입니다.

여성노조 조합원이라면 또 놓치지 않고 지나갈 일이 3월에는 있습니다. 바로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100년도 더 전에 하루 14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던 1만 5천의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이 투표할 권리와 노동조



합 결성의 권리,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일을 전 세계에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결성 되면서부터 지역마다 열리는 3.8여성대회에 주역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정치적 지위 향상,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은 106년 동안 세계 여성의 목표였고 현재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방선거승리와 다양한 노조활동, 임금인상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날을 제대로 기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자!



(2013.12.02 매일노동뉴스 게재 표지사진) 2013년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파업결의대회 모습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3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장기근무가산금 1년당 2만원을 인상하고, 10년 이상 근무자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한제를 시행 한다고 한다. 1년 동안 근무한 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던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방학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방학 중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은 예년이나 2014년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방학 중 비근무직종은 방학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시 지속적 직종에 대해서 채용 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사 합의 했지만 실상은 상시 지속적 직종이라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았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돌봄 및 전문상담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시간제를 강요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 장기근속가산금을 인상한 것과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 채용 등은 호봉제와 고용안정을 외치며 농성과 집회, 시위, 파업 등 학교비정규직들이 열심히 싸운 성과이지만 처우개선안에 대한 체감온도는 반쪽짜리 처우개선안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이다.

우리는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 올해 2014년은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근속에 따른 처우가 제대로 되는 호봉제를 위해 힘을 모으자.' '방중 비근무자들의 방학 동안 생계대책도 세우도록 하자.' '상시 지속적 직종은 채용 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불안이 없는 학교를 만들자.' 학교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존재할 때 학생들은 차별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직종과 고용형태를 뛰어넘어 단결하여 2014년은 차별을 철폐하고 학교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 적극 나서자.

평등 평화 새 삶의 공동체 전국여성노동조합 2014 정기대의원대회 성황리 개최

2014 전국여성노동조합 제1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지난 1월 18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의원 147명중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나지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14년은 여성노조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15주년 행사와 더불어 더 많은 투쟁을 해야 하는 해일 것 같다."며, "힘차고 즐겁게 투쟁하여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자."고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IUF 국제식품연맹 한국사무소 사무국장 정옥순 내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채택된 회순으로 2013년 사업보고와 평가 승인, 2013년 회계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안전 순으로 상정되어 논의하였으며,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광주전남지부 과학지회 '선도투쟁상', 경남지부 '바위처럼', 서울지부 서강대청소용역분회 '밥값투쟁상'으로 모범상을 받았다. 인천지부는 2013년 한해 동안 조합원대비 가장 많은 가입률로 5개의 분회를 새로 결성하여 조직확대상인 '팍팍늘려상'을 받았다.

본대회 전에 사전행사로 각 지부마다 준비해온 문화공연을 하였다. 광주전남지부 '난타와 춤', 대전충청지부 '빠빠빠 춤과 노가바', 전북지부 '울동과 노가바', 인천지부 '15주년기념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와 춤', 서울지부 '심오야 노래공연', 대구경북지부 '벚꽃노래 및 악기공연', 울산지부 '막춤과 노가바', 88CC분회 '바위처럼 노래와 울동'으로 흥을 한껏 돋궈내 대의원대회를 빛냈다. 부대행사로 경남지부에서 준비한 소모임 작품 전시도 있었다.



88CC분회 경기보조원, 대법원에서 “부당징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승소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88CC분회 경기보조원들이 국가보훈처가 위탁 운영하는 88관광개발(주) 회사를 상대로 상고한 '2011다78804 부당징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88CC 경기보조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집단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상고한 41명중 38명은 노조법을 적용해 승소 판결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3명에 대해서는 부당징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의 종속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와 근로자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여부로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한다.

2008년 9월쯤 골프장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조합원들이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지적과 심한 질책을 받았다. 회사는 경기보조원 조합원 한 명에게 '추후 처벌'을 전제로 일단 출장 유보를 통보했고 이에 88CC분회 조합원들이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결근하는 등 항의하자 사측은 무단결장·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후 '부당징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6년간 진행되었다.

88CC분회 조합원들은 국가보훈처 앞에서 월 1회로 매월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2014년 1월부터는 세종시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1월 21일엔 경기지역 '샤테' 풍물패의 힘찬 길놀이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신년집회를 열었으며, 지민주 민중가수의 힘찬 노래도 함께하였다. 2월 17일 집회에서 나지현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승소로 88관광개발(주) 골프장으로 원직복직되어 일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와 교섭을 통해 조합원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조합원들은 일제히 '단결투쟁! 승리쟁취!'를 외치며 모두 함께 '원직복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노동조합가'와 '딸들이 일어난다' 배우기를 시작으로 나지현 위원장(인천지부장)이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노조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이어진 교육은 인천지부 분회장들의 분회투쟁의 경험과 분회활동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후 나른한 시간에 진행된 교육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경청하는 분위기에서 즐겁게 진행되었다. 또한 여성노조 단결투쟁을 힘차게 외치며 여성노조 활동에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2월 28일에는 신규분회 조합원 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다.

| 전북 | 전북지부 제1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지난 2월 21일 전북지부 제1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대의원 82명, 위임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모범상 시상식은 지난 파업 때 무주지역 전체가 결의해서 무주지역 여성노조 소속 급식실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여 서울 상경투쟁까지 이루어낸 무주지역 급식 조합원들에게 돌아갔으며, 올해에는 임원선거가 없어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만 진행되어 대의원대회가 일찍 마무리되었다.

대의원대회 이후 각 지회별 총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급식지회는 임원선거가 있어 지회장 및 부지회장, 사무장등 새로운 임원진이 구축이 되었다. 급식지회 지회장으로는 여성노조 전북지부 원년 멤버인 평화초 강명숙지회장과 학교교섭을 통해 단련된 동중학교 강경자 부지회장, 그리고 가장 늦게 노동조합에 결합했지만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완주상관초 김정이사무장이 급식지회를 이끌 새로운 간부로 선출이 되었다.

올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4년에도 여성노조 전북지부가 활기차게 선봉적으로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면서 마무리 되었다.

| 서울 | 서울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소식



지난 2월 21일 서울지부는 제1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시작 전부터 조합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각 분회와 지회, 개별 모임에서 정성껏 마련한 갖가지 음식들을 나누고 예사롭지 않은 몸짓을 선보인 김춘자 조합원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32명 중 27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이번 대의원대회는 제8대 사무국장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됐는데 전원 찬성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안현정 조직담당장이 사무국장으로 당선되었다. 안현정 신임 사무국장은 '언니처럼, 엄마처럼, 이모처럼 살가운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고 조합원들은 '든든하다. 믿음직스럽다. 지부장님과 함께 지부를 잘 이끌어 달라'며 너도 나도 축하해주었다. 서울지부는 2014년, 주먹 불끈 '화이팅!'을 외치면서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결의했다.

| 경기 | 경기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소식



지난 2월 22일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강당에서 여성노조 경기지부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54명의 참석과 경기지부 임원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쳤다. 대의원대회에 오셨던 대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인천 | 신입조합원 교육 실시



2월 25일 여성노조 인천지부는 '신나는 일터! 행복한 세상! 여성노동자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신입조합원

| 광주전남 | 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연구용역발표회 및 새 상근자 근무소식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3년 11월부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상반기 중 『급식전담인력 근무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급식전담인력 근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1월 2일자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사서지 회장 김경미)이 사무실 상근자로 나왔다. 900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지만 2013 단체협상의 결과로 유급상근자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년 후 교섭에서는 1년간 상근할 수 있도록 조합원확대에 매진해야겠다.

지난 2월 24일에 광주전남지부 노조사무실에서 제 15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제8대 지부장 보컬선출로 지부장(사서지회장 김경미)도 선출하였다.

그리고 1월 22일 수요일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3층 304호에서 과학실무사의 업무능력신장을 통한 과학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하여 초등 32명, 중등 21명 총 53명 연수를 실시하였다.

| 경남 | 제15차 정기대의원대회



지난 2월 15일 제 15차 정기대의원대회가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로 헤쳐왔던 1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성노조의 자랑으로 경남지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14년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 대구경북 | 청마의 해~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지난 2월 8일 대경지부 13차 정기대의원대회가 경북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대경지부 조합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이전과 형식을 달리해 한해 활동을 지회별로 평가하고, 각 지회에서 보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지회별 평가에서는 다양한 평가들과 과제들이 나왔으며, 올 한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회의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평가 결과들을 각 지회에서 발표하면서 직종간의 격차를 줄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올 한해 사업도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의원대회의 마무리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소원을 담은 작은 배들을 여성노조 호(號)라는 큰 배에 담아, 올 한해도 거친 풍파에도 무사히 순항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지부 대의원의 수가 늘어갈수록 간부들의 어깨는 무거워지지만, 조합원들이 있어 힘이 난다고 이야기 하시는 지회장과 분회장

님들이 계셔서 대경지부는 올해도 순항이라고 본다.

| 대전충청 | 목원대분회 총회 소식 및 단체교섭 소식



지난 1월 22일 목원대분회는 2013년 한해를 평가하고 2014년을 계획하는 총회를 진행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신임간부도 선출하였다. 박경숙 분회장, 이현숙 회계감사, 이순이 조직부장, 홍무선 교육부장, 최선하 총무 등 만장일치(?)로 뽑힌 신임 간부들에게 조합원들은 격려와 믿음, 설렘이 담긴 힘찬 박수를 보내줬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2014년 근로조건에 대한 3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노사 양측 모두 연성이 높아져 결렬될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 2차 교섭에서 예산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전부 합의되면서 이번 3차 교섭에서는 회사측 '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사가 원청인 학교와의 도급계약을 핑계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끼입기, 학생 서명, 집회 등 단체행동 돌입을 다함께 결의했다. 조합원들의 대동단결로 목원대분회 단체교섭이 하루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 울산 | 울산지역 간병·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노조 울산지부는 1월 15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실에서 간병,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발표와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동안 울산지역 요양보호사 및 간병사 17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토론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일회적이지 않은 지속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여성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 성희롱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인권과 여성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여성노조 울산지부는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 서명운동'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상담 |

미싱사 여성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소재 ○○회사 미싱사 여성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어느 날 ○○회사는 미싱사 여성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2주간 무급휴가라며 일하러 나오지 말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이에 미싱사 여성노동자들은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며, 상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회사의 부당한 행위는 일방적 무급휴가 통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 납부금원까지도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임금도 보름치는 지급하지 않고 갈아 놓고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주간 무급휴가 통보이후 또다시 미싱사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간만 객공으로 일하러 오라는 일방적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객공이란 일한 시간이나 일수와 상관없이 한 장당 얼마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채용조건 변경을 의미합니다. 여성미싱사들은 여성노조와 상담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회사에 찾아가 항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의 자리에서 미싱사 여성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처리라고 하였습니다. 부당하고 법적절차를 진행하려하자 회사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환급금, 추석상여금, 미지급 달 임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미지급한 금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합의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부당하고 관계관청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남 | 최저임금 경남운동본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선포식"



경남지부를 비롯한 13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에서는 각 사업장 최저임금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위한 14년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이후 거리선전전과 다양한 형태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획 | 2014년도 달라지는 노동법 알아보기

Q&A로 알아보자! 2014년 달라진 노동 관련 법제도

Q.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088,890원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단,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는 올해까지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1년 미만으로 계약할 때에는 최저임금을 지켜 줘야 합니다.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 물가는 오르고, 회사는 문을 닫는데요. 체당금은 안 오르나요?

A. 체당금 상한액이 물가 및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 및 세금 원천 징수를 감안하여 월평균 8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체당금 상한액〉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임금,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최대보상액	1,080만원	1,560만원	1,800만원	1,680만원	1,260만원

Q. 일한지 3개월 막 넘었는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2012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공급 자격여부를 확인하려면 직

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세요.

	2013년	2014년
기간제,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재직	3개월 이상 재직
일용직 노동자	6개월에 90일 이상 근로	6개월에 60일 이상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산재보험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

Q.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그대로인가요?

A.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초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개정 후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지켜봐야겠지요? 일단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통상임금 40% → 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인상: 통상임금 40% → 60%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로기간 연장 가능

Q. 대체휴일제가 생겼는데, 올해는 언제 쉬나요?

A. 2014년부터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가 도입됩니다. 설,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이 하루 생긴답니다. 물론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단협을 통해 이를 따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휴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 문화예술마당 |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고

황상구씨는 속초에서 택시운전을 한다. 아주 평범한 아버지다. 딸 윤미(23세)는 삼성반도체에 다닌다. 아버지는 딸이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딸 윤미는 2003년도부터 삼성반도체에 다녔는데 2005년도에 '백혈병' 진단을 받는다. 그 후 2007년도에 죽는다.

한국에서 가장 선망받는 기업이며 누구나 1순위로 다니고 싶어 하는 꿈의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이 딸과 같은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거나 희귀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딸의 죽음 앞에 의문을 가지고 거대한 삼성반도체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한다. 끝내 산재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명개는요, 태어날 때는 뇌가 있는데요, 바다 속에서 자리잡고 살면서 뇌를 소화시켜 버린대요."

우리도 노동자로 살며 한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리 잡으려 노력한다.

산업재해는 어디에서나 일어 날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처럼 삼성과의 싸움이 그런 것 같아 영화 초반에서는 답답한 심정이었다.

"내 몸값이 얼마나 할까" 영화에서 윤미가 한 말이다. 죽음을 돈으로 값을 흥정하며 이를 숨기려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대 자본 삼성은 막대한 병원비



를 내야하는 윤미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준다.

우리가 윤미 부모로 아파하는 자식 앞에서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윤미 아버지처럼 완고하게 죽음의 원인을 밝혀 낼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본다.

"정치는 표면이고 경제가 본질이다"라고 영화에서 말한다. 거대자본이 이렇게 말을 하니 더욱 울화가 치밀었다. 무노조 원칙, 비정규직노동자 확대, 단시간 노동 확대로 가고 있는 삼성이다. 이런 거대 자본 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다. 이로 인해 우리의 노동현실은 쓰고 버리는 헌신짝 마냥 더욱 비참해져 가기만한다.

태안 기름유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강정해군 기지건설, 불산유출 등 삼성이 국민에게 한 짓거리들 인데 전혀 반성이 없다.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도 기업하기 편한 나라라니!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상영 횟수가 많지 않아 단체로 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단체로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며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대구경북지부